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보건학석사학위논문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흡연 · 음주 및
영향 요인 분석

Adolescents'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
from single-parent families and affecting
factors

2014년 7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김도경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흡연 · 음주 및 영향 요인 분석

지도교수 김 창 엽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김 도 경

김도경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6월

위 원 장 유 승 현 (인)

부 위 원 장 조 성 일 (인)

위 원 김 창 엽 (인)

국 문 초 록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부모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개인적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한부모 가정이라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한다. 이들이 흡연·음주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청소년 흡연·음주가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으로 맡겨두기에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면 한부모 가정 청소년 흡연·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일탈 및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근거로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흡연·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과제 중 하나인 ‘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실태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최종 응답 학생 9,844명이 분석 대상이 되었으며, 청소년의 흡연·음주 경험 여부를 종속 변수로, 가족구조, 사회유대이론 변수, 사회학습이론 변수를 설명 변수로, 성별, 거주지, 부모 학력, 부모 직업, 주관적 경제 수준, 학년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가족구조에 따른 일탈 이론 변수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one-way ANOVA와 t-검정을 실시하였고, 흡연·음주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각각 적용하였을 때와 함께 적용하였을 때를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양부모 가정에 비해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및 기타 가정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은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애착, 부모감독, 친구애착, 교사애착, 관여, 신념, 정의에 있어서는 평균 점수가 낮았고, 차별적 접촉에 있어서는 평균 점수가 높았다. 부모애착, 부모감독, 관여, 신념, 정의는 청소년 흡연·음주 경험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애착, 교사애착, 차별적 접촉은 청소년 흡연·음주 경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소년 흡연·음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차별적 접촉이었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 부모의 학력, 학년이 청소년 흡연·음주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 및 결론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흡연·음주 문제를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흡연·음주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기호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은 흡연·음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은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유대가 약하고, 관여하는 경우가 적고, 신념이 약하고, 일탈에 우호적이며, 흡연 친구나 음주 친구가 많은 편이며, 이는 흡연·음주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흡연·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록 가족구조 자체의 변경은 불가능하더라도 이들이 경험하는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모니터링 및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한부모 가정, 청소년 흡연·음주, 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학 번 : 2012-23708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3
3. 연구의 목적	5
II. 이론적 배경	6
1.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	6
2. 일탈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	8
1) 사회유대이론	8
2) 사회학습이론	11
3.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 필요성	13
4. 분석을 위한 통합 모델	14
III. 연구 방법	17
1. 연구 모형 및 가설	17
2. 연구자료	18
3. 연구변수의 측정	18
1) 종속 변수	18
2) 설명 변수	19
3) 인구학적 통제변수	20
4. 자료 분석 방법	23
IV. 연구 결과	24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4
2. 가족구조에 따른 일탈 이론 변수의 특성	29
1) 가족구조에 따른 일탈 이론 변수의 특성	29
2) 한부모 가정 부모의 성별에 따른 일탈 이론 변수의 특성	32
3.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흡연·음주의 영향 요인 분석	33

V. 결론	40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40
1) 분석결과 요약	40
2) 가족구조가 청소년 흡연·음주에 미치는 영향	42
3) 일탈 이론에 따른 변수가 청소년 흡연·음주에 미치는 영향	43
5)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 청소년의 흡연·음주	47
2. 정책적 함의	48
3. 연구의 제한점	51

표 목차

표 1. 변수 별 문항 내용	22
표 2.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6
표 3. 한부모 가정 부모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7
표 4.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경험	28
표 5. 한부모 가정 부모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경험 ..	29
표 6.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들의 일탈 이론 변수의 특성	31
표 7. 한부모 가정 부모의 성별에 따른 일탈 이론 변수의 특성	32
표 8. 청소년 흡연의 영향 요인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36
표 9. 청소년 음주의 영향 요인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39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모형	17
-------------------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인간은 누구나 태어남과 동시에 가족이라는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 된다. 각 개인은 가족 속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야 할 발달 단계를 거치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배울 뿐 아니라(이경희 외, 2006), 가족 기능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구성원 간에 실질적 지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정서적으로 지지하고자 한다(허혜경 외, 2013).

현대 사회는 수십 년 동안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겪어오면서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이혼율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구조도 변화를 겪고 있다(김정은, 2008). 지난 20년 간 한국의 조 이혼율은 1990년 1.1명에서 2010년 2.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혈연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도 2000년 9.4%, 2005년 11.0%, 2010년 12.3%로 증가 추세이다(통계청, 2012). 따라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부자가족이나 모자가족과 같은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 수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 가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쪽 부모가 부재하는 가족구조의 변화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김영란 외, 1998).

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발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기의 개인적 발달과업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한부모 가정 환경에의 적응이라는 이중과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남현주, 2013). 한편,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배우자 부재와 경제적 빈곤으로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모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부모의 관심과 도움, 감독을 덜 받게 되며, 일탈 및 비행 등 여러 가지 문제 행동에 관련되게 된다(양소영, 2002).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교를 그만둘 가능성도 높으며, 비행이나 문제 행동과 더불어 흡연과 음주와 같은 건강위험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다(Sweeting et al., 1998). 여러 연구들은 가족구조의 변화를 겪은 청소년들의 경우 흡연 또는 음주 경험율이 높다고 보고한다(Foxcroft 1991; Glendinning et al., 1997).

청소년 일탈 및 비행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에는 그 원인으로 사회학적 변인이 비행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왔고 다음으로는 사회심리학적 원인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사회학적 요인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실증적 연구에서 일탈 및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적용되어 온 이론으로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과 Akers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이 있다(유순화, 2003).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모든 사람이 일탈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 사회와 가지고 있는 유대감이 약해지거나 깨어질 때 일탈 및 비행이 일어난다고 보며(Hirschi, 1969),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은 일탈 및 비행 행동을 하는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사회적 보상 및 강화를 통해 비행을 학습하게 된다고 본다(Akers, 1998). 두 가지 이론의 핵심 주장을 종합해보면 일탈 및 비행 행동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사회와 가지고 있는 유대감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들 중 일탈 및 비행 행동을 하는 집단과 상호작용을 하여 유대 관계를 맺고 비행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흡연·음주라는 것은 보건학적인 입장에서는 건강위험행동이지만 사회적으로 일탈 행동이기도 하다. 부모의 이혼 및 사망으로 인해 가족구조가 변화되는 경우 청소년들은 긴장된 삶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가족 내에서의 지지구조가 약화되며 통제 및 감독하는 부모의

수가 감소하여 청소년의 내적 통제력이 약화된다고 한다(Hoffmann, 2003). 또한 가족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가정에서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성취할 수 있는 자원과 기회가 결핍되었다고 느끼며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친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체계(부모나 학교)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전통적 사회체계 외부에서 또래들과의 밀접한 유대를 통해 음주, 흡연 등의 약물사용의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된다(Petratis et al., 1995). 이렇듯 가정은 인간이 출생하여 제일 먼저 사회관계를 맺는 혈연공동체이며, 장차 사회에서 행할 행동규범의 교육훈련장으로써(한혜은, 2008), 가정 밖에서의 사회적 유대와 비행에 대한 태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흡연·음주 행위가 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많은 원인을 사회적 일탈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청소년 일탈 및 비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유대의 약화나 통제력의 부재, 또는 비행 친구의 영향만으로 행위의 결과를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유영재, 2009). 따라서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이 상호보완적이라는 판단 하에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 모두를 적용하여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흡연·음주 및 영향 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흡연에 따른 건강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청소년의 흡연은 더 큰 사회적 문제이며,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이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정신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김현옥 외, 2007), 성행위, 가출, 학교폭력 등의 다른 비행행위와 관련(김재엽 외, 2010)될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니코틴 중독, 심혈관계 질환, 뇌 질환, 폐암 등 각

중 질환 및 조기 사망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이은하 외, 2010; Hahn et al, 2002, USDHHS, 2012) 보고되고 있다.

한편, 음주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가 성인에 비해 신체 내 세포를 비롯한 모든 조직이 발달 중인 청소년에게 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김지경 외, 2013)고 한다. 또한 청소년 음주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탈 및 문제행동의 가능성 또한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한다(Odgersetal.,2008; USDHHS,2007; Zucker& Wong,2005).

흡연은 각종 사망,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 중 예방 가능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음주 또한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적, 국가적 손실로 연결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 2006) 영역이다.

청소년의 흡연·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청소년 흡연·음주와 관련된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가족구조와 청소년 흡연·음주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 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청소년 흡연·음주 문제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비행행동의 합산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면서 흡연이나 음주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단지 비행의 하위요소로 검토하였다(김영미, 2006).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흡연·음주 행위를 이해하고 예방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흡연·음주 행위를 단순히 비행 행동의 일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가 가족구조 내에서 또는 가족구조 밖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 발현되는 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개인적 발달과업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한부모 가정이라는 환경에의 적응이라는 이중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들이 흡연·음주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청소년 흡연·음주가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으로 맡겨두기에는 심각한 사회적 문

제라면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흡연·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흡연·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청소년 흡연·음주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계획하는 데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가족구조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음주 경험이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변수들이 각 집단의 흡연·음주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가족구조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음주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다.
- 2)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변수의 평균이 각 가족구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다.
- 3)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근거로 정의한 변수가 각 가족구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흡연·음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자제력이 약할 뿐 아니라 학업성취 부담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기이다(유안진 외, 2005).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과는 다른 직·간접적인 역할 요구, 가정환경, 사회의 좋지 않은 시선에 적응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남현주 외, 2013). 가족체계의 붕괴는 불안정감을 증폭시켜 청소년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성장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며,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분노, 외로움, 상실감, 죄책감을 느끼는 등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비행이나 일탈 행동을 하기도 한다(조아미 외, 2009).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양부모 가정과 달리 생계와 자녀양육의 문제를 혼자서 떠맡아야 하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므로 청소년기 자녀를 감독하고 지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정소희, 2006).

선행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보다 마약사용, 음주 및 흡연행위에 많이 관련된다고 보고한다(Demuth & Brown, 2004; Kierkus & Baer, 2003). Hoffmann(2002)은 가족구조가 지역사회 변수(도시거주 여부)나 부모관련 변수들(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 애착, 소득)과 상관없이 청소년의 음주와 마약사용에 대해 유의미한 직접적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하였고, Bjarnason(2005)는 부모관계, 종교성, 부모의 지지, 감독의 변수가 통제

되더라도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양부모 가정의 자녀보다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하였다. Griesbach 등(2003)도 가족 수입, 부모 흡연 등의 변수가 통제되어도 가족구조는 흡연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흡연·음주 및 비행에 가족구조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가족 기능이 중요한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Adlaf와 Ivis(1997)는 가족구조는 흡연, 음주, 마약사용, 비행에 대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만 부모관련 변수들이(부모 감독, 관여, 관계의 질)이 통제될 경우 마약사용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효과를 유지하고 흡연, 음주, 비행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은 상실되었다고 하였으며, Kuntsche와 Kuendig(2006)은 가족구조 유형에 상관없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자녀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것이 청소년 음주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한편, 한부모 가정을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각 가정은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백광흠(2004)의 연구에 따르면 부자가정은 가족기능의 하위영역인 문제해결 기능, 의사소통 기능, 정서적 반응성 기능, 정서적 관여 기능, 가족이념 기능에서 양부모 가정과 모자 가정보다 기능 정도가 낮다고 한다(정지연, 2007). 또한 부자 가정의 부들은 전통적으로 모들이 수행해 오던 표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이러한 역할을 배우는 기회 또한 적어 모자가정에 비해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전재일, 1999). 또한 정서적 생활의 근원인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은 감성적 표현과 애정표현의 어려움을 느끼고, 학습모델의 부재로 인한 역할수행상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권정순 외, 2002). 이들은 심리적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으로 약물사용, 가출 등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한만수, 2001). 반면, 저소득 모자 가정의 경우 주로 일용직과 자영업상으로 저임금 직종에 몰려 저소득, 장시간의 노동으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에 연쇄적인 문제를 보인다(김영희, 2003). 모자가정의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 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모델의 부재를 겪게 되며 이로 인해 경

제적 불안과 정서적 장애, 사회적 가치 기준의 왜곡을 가져와 청소년이 흡연과 음주에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한혜은,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의 청소년들이 일탈을 하게 되는 경로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한부모 가정 부모의 성별을 구분하여 각 가정 청소년의 흡연·음주 경험 및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의 청소년들은 그 원인이 다르긴 하지만 두 가정 모두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 자원과 부모의 통제가 결핍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일탈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

1) 사회유대이론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은 모든 사람들이 일탈에 대한 동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왜 사람들이 사회의 규칙에 복종하는가라는 질문에 관심을 가지며 일탈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순응이 설명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일탈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사회적 유대를 이루는 대인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기타 사회에서 맺은 무수히 많은 유대관계가 개인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Hirschi는 사람들이 사회와 유대를 갖기 때문에 규범을 준수하며,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러한 유대가 약해지거나 끊어지면, 사회통제가 개인에게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개인은 거의 자동적으로 규범을 어기게 된다고 하였다. 즉, 사회의 유대 여부가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Hirschi, 1969). 사회유대이론은 애착(attachment),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의 4가지 개념으로 구성된다. 이 4가지 요소가 강할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진다.

애착은 타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는가, 얼마나 그들을 존경하여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는가 등의 정도를 말한다. 즉 원초집단인 부모나 친구집단과의 애착이 약하면 아이들은 비행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관여는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고 저축을 하는 것처럼 관습적인 활동의 정도로 이에 관심이 없거나 부족하면 일탈행위를 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참여는 학교, 여가, 가족과 함께 시간보내기, 그 외 과외활동 등과 같은 활동에 열중하는 정도를 말한다. 청소년들이 이런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청소년 비행의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보았다. 신념은 일반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인정, 특히 법과 사회규칙이 도덕적으로 옳으며 지켜져야 한다는 믿음의 정도를 말한다. 청소년들이 이런 신념이 약하면 반사회적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황성현 외, 2013).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많은 경험적 연구에 의해 유용성이 입증되어 왔다. Hirschi(1969)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중·고등학생 4,07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였다. Gardner와 Shoemaker(1989)는 Hirschi(1969)의 설문지를 약간 수정하여 버지니아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고, 네 가지 유대변인들(애착, 관여, 참여, 신념)이 사회유대이론에서 제시하는 것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비행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Rouse와 Eve(1991)는 가출, 반항, 약물이나 범죄 등 여러 가지 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유대변인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나 교사에 대한 애착과 교육적 목표에의 헌신, 인습적 활동에의 참여, 그리고 인습적인 신념은 청소년 비행에 부적 상관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 Hirschi의 이론에 대한 재검증을 시도(Krohn & Massey, 1980; Thompson, Smith-DiJulio, & Mathews 1982)하거나, 사회유대이론의 확장(이동원, 1997; 이성식, 1999; Gardner & Shoemaker, 1989)을 꾀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사회유대이론을 적용하여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설명한 연구들이 제법 존재한

다(심미영 외, 2007; 임은희 외, 2007; 황성현, 2009).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대체로 네 가지 유대변인들 가운데 애착이 비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져 있다. 애착은 다시 부모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으로 나뉘지는데 그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많은 연구에 의해 일관되게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Hirschi, 1969; Krohn & Massey, 198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애착 변인을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애착은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친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간접적 통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감독은 부모가 자녀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부모 애착과 부모 감독은 다른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동원, 2006)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흡연이나 음주라는 건강 위해 행위의 경험 여부인 것을 고려하여 부모감독을 평소 자녀의 건강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로 측정하였다.

관여는 처음에는 청소년의 교육적인 열망에 관한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나 나중에는 학업성적을 사용하여 측정하게 되면서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요소로 평가받게 되었다(이동원, 1997; Massey & Krohn, 1986). 많은 연구에서 참여는 그다지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지지 못했으며 특히 학업성적으로 관여를 측정하기 시작하면서 참여와 관여의 구분이 모호해져 여러 경험적인 연구에서 참여를 제외시키고 있다. 특정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활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이성식, 1995; 이동원, 1997).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학업 성취도로 관여를 측정했고, 참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신념은 개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가치로 사회의 인습적인 가치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흡연이나 음주의 경험 여부인 것을 고려하여 신념을 흡연·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2) 사회학습이론

서덜랜드(Sutherland)는 1939년에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을 제시하면서 청소년들이 주위 사람들로 부터 범 위 반에 호의적인 가치나 태도를 학습하게 되면 일탈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즉 비행은 학습되는 것이고, 그것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의해서 학습된다고 했다. 버제스와 에이커스(Burgess and Akers, 1966)는 차별강화이론(differential reinforcement theory)를 주장하면서 비행이 주위 사람들로 부터 학습되 지만 학습원리, 즉 강화의 원리에 의해 학습된다고 주장했다. 즉 사람들은 보상이 있으면 그 일을 반복하고,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일을 회피한다 는 것이다.

에이커스(Akers, 1985)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차 별접촉이론을 확장하였으며, 차별적 강화의 원리도 통합시킨 이론이다. 사회유대이론이 인간의 본성을 본래 악하다고 본다면 사회학습이론은 인 간의 본성을 변화가 가능한 백지로 본다. 인간의 행위는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shoemaker, 1984). 사회학습이 론은 비행이나 일탈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고 주 장하며(Akers, 1998), 청소년들이 학습한 가치와 태도에 주목한다. 어떤 청소년은 법을 절대로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청소년은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가치관은 청소년들이 주위 사회 환 경으로부터 학습한 범위반에 대해 갖는 가치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김준호 외, 2006).

사회학습이론은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정의 (definition),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모방(imitation) 이라는 4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별적 접촉은 비행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나 가치, 규범 등을 가진 친구 들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정의는 주어진 행위

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를 말한다. 즉 비행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합리화를 잘 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신도 그런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별적 강화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처벌과 보상에 대한 실제적 또는 예상되는 균형을 의미한다. 즉 비행을 통해 긍정적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면 그런 비행을 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모방은 타인의 행동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찰한 후에 그것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황성현 외, 2013).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검증은 Akers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발표된 청소년 음주와 약물사용에 대한 연구이다(Akers et al., 1985). 연구 결과, 차별적 접촉과 차별적 강화, 정의, 모방은 청소년 알콜 사용 변량의 55%, 마리화나 사용 변량의 68%를 설명하였다.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은 차별적 접촉이었으며 모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로 행해진 주요 네 개 변인과 흡연 행동의 관계 연구에서 사회학습모델은 흡연 행동변량의 54%를 설명했다(Spear & Akers, 1988). 또한 5년 동안 청소년 흡연행동에 대해 실시된 조사에서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하는 사회학습과정을 분석한 결과, 사회학습이론의 유용성이 지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Akers & Lee, 1996). 그 밖에도 Akers는 사소한 비행에서부터 심각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행동에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입증해왔다(유순화, 2003).

사회학습이론은 Akers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실시된 연구를 통해서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범죄, 비행, 약물 사용의 설명에 있어서 차별적 접촉, 모방, 정의, 차별적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매우 많다(Benda, 1994; Patterson & Dishion, 1985; Sellers, & Winfree, 1990; Warr, 1993; 황성현, 2013). 또한 다른 이론과 비교하여 평가하였을 때 사회학습이론으로부터 나온 변인이 다른 이론의 변인보다 대체로 더 강한 효과를 가진다고 밝혀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범죄나 비행의 시작, 계속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차

별적 접촉, 특히 비행하는 또래와의 접촉이었고, 가장 효과가 적은 것은 Akers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모방’인 것으로 나타났다(Benda, 1994; Chen, White, & Pandina, 2001; Matsueda, & Heimer, 1987; McGee, 1992; White, Johnson, & Horowitz, 1986; Winfree & Bernat, 1998). 우리나라에서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사회유대 이론보다는 많지 않지만 제법 존재하는 편이다(유순화 외, 2003; 황성현, 2009, 2010, 2012).

3.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 필요성

이론의 통합은 기존의 이론이 갖고 있는 경험적 적합성에 대한 불만, 이론 발전과 검증에서의 경쟁적 가설접근에 대한 불만에서 빚어지는 산물이다(이윤호, 2002).

여러 가지 비행 이론이나 접근 방법이 비행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개별적으로 서로 다를지라도 상호 보완적일 수도 있다. 비행에 관한 연구 영역에서는 최근 다양한 개념과 접근법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Shoemaker, 1984). 이러한 노력 중 가장 현저한 예는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과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남정자, 1991; 이태원, 1992; Akers & Cochran, 1985; Benda, 1999; Corwyn & Benda, 2000; LaGrange & White, 1985; Massey & Krohn, 1986).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은 출발점이 다르다. 사회유대이론의 경우 비행이 왜 일어나지 않는지, 즉 비행을 억제하는 요인에 초점을 두고, 사회학습이론은 무엇이 비행을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이 두 이론의 통합은 비행을 억제하는 요인과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을 하나의 모델 속에서 모두 고려할 수 있게 한다(이태원, 1992). 사회유대이론은 비행을 억제하는 요인, 즉 관습적 유대가 약화되었을 때 비행이 유발된다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행위 자체에 대한 견제, 제재, 또는 저지의 부재나 부족만으로는 그 결과 초래되는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이운호, 1988). 더군다나 일탈할 수 있다는 자유 그 자체가 항상 일탈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한 개인이 관습적인 사회에 애착을 갖지 못해서 그가 일탈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일탈할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이용할 만한 동기를 부여받아야만 실제로 그가 일탈행위를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Gibbons, 1975). 따라서, 비행은 약화된 관습적 유대와 강력한 비행적 유대 양자의 결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학습이론은 사회유대이론이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설명해준다. 비행을 하는 사람은 약화된 관습적인 유대와 그에 따른 약화된 관습적인 제재로 비관습적인 사회집단에서 사회화되어지고, 비행집단에 대한 강력한 유대를 가지며, 자신의 비행 행위의 결과 예측되는 사회적 보상이 예측되는 비용(cost)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학습이론은 관습적인 애착과 유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 관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왜 비행을 택하게 되는가를 설명해준다(이운호, 1988).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은 개별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사회유대이론의 가정은 어떤 사람은 사회유대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지, 혹은 유대가 강한 사람들은 왜 비행을 저지르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지 못 하고, 사회학습이론의 가정은 충동이나 우연에 의한 비행은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비행은 비행집단과의 차별적 접촉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비행 집단의 맨 처음 비행자는 왜 비행에 참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어렵다(유순화, 2003). 이러한 한계들은 이론의 통합을 통해서 상당 부분 보완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청소년 흡연·음주에 대해서도 더욱 포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4. 분석을 위한 통합 모델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진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태원(1992)은 지금까지 이론적 통합을 시도한 많은 연구들은 이론들로부터 나온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적 설명도 없이, 그들을 하나의 모델 속에 혼합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통합모델(integrated model)과 혼합모델(mixed causal model)의 혼동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태원(1992)은 자신의 연구에서 사회유대이론으로부터 애착, 전념, 개입이라는 변수를, 사회학습이론으로부터 비행친구와의 교체, 정의, 비행적 동기와 충동이라는 변수를 도출하여 통합모델을 구성하였다. 경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각각에 대해 도출한 변수들을 가지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델적합성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사회학습이론 변수들이 모든 비행유형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유대이론 변수의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유대이론 변수들의 비행에 대한 영향은 사회학습이론 변수에 의한 간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순화(2003)는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이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지 검증하고자 했다. 이론 통합은 부가적(additive) 모델로 이루어졌다. 각 이론의 변수들을 한 모델에 결합하여 개별 요소(부모애착, 학교 성적, 차별접 접촉, 차별적 강화, 정의(신념))들이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예측변인들간의 상관이 매우 높은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집단 내 통합상관에서 본 연구의 예측변인들은 다중공선성 문제가 의심되어 변인을 제거해야 할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 결과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 변수가 통합된 판별함수는 개별 함수보다 더 적합성이 높았고, 실제 청소년들을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분류할 때도 개별함수보다 통합된 함수가 더 잘 들어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모델에 포함된 모든 변수가 청소년 비행을 예측하는 데 유의미

했고, 특히 차별적 접촉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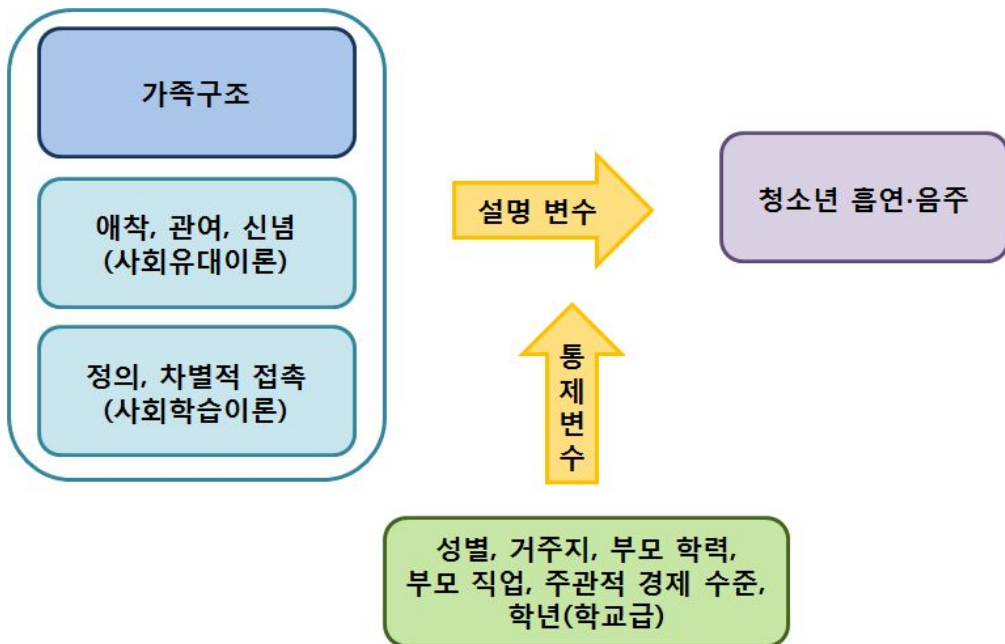
박정선(2013)은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사회학습이론 중 어떤 이론이 한국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세 가지 비행이론에서 추출된 변수들을 각각의 회귀방정식에 회귀시켜 결정계수(R^2)를 구한 후, 각 이론에서 추출된 모든 독립변인들을 한 회귀방정식에 회귀시켜서 구한 결정계수(R^2)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지 살펴보았다. 세 가지 이론을 통합한 모델의 결정계수(R^2)가 가장 컸으며, 개별 이론 중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흡연·음주 경험과 그 영향 요인을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으로부터 추출한 변수들 간의 경로를 분석하기 보다는,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진단한 후 병렬적으로 통합한 모델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단,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통합한 모델의 설명과 모형 적합도가 개별 이론을 적용했을 때와 어떻게 다른 지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및 가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성별, 거주지, 부모 학력, 부모 직업, 주관적 경제 수준, 학년을 통제하였을 때, 설명 변수인 가족구조와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따른 변수가 청소년 흡연·음주 경험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과제 중 하나인 ‘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실태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실태 조사’는 한국 청소년들의 건강(신체·심리)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수행된 조사이다. 이 조사의 모집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의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4~6학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3학년)이다.

‘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실태 조사’의 표본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9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 중,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12개 시도별 학생 수를 구분한 후에 부차모집단별 비례배분에 의하여 목표 표본수(학생수)를 할당하였다. 학교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을 적용하여 지역별 할당된 학교를 추출하고, 추출된 학교에서 추출 순으로 학년 추출, 학급 무작위 추출을 거쳐 10,850명의 표본을 선정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본 연구에서는 최종 응답 학생 9,84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변수의 측정

1) 종속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흡연 경험 여부’와 ‘음주 경험 여부’이다. ‘흡연 경험 여부’는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 두 가지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

로 측정되었다. ‘음주 경험 여부’ 는 ‘지금까지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다’ 또는 ‘없다’ 두 가지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음주 경험에는 명절이나 제사 또는 성찬식 때 마셔본 것은 제외된다.

2) 설명 변수

(1) 가족구조

가족구조는 현재 응답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누구인지 묻는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 문항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친척, 기타, 없음의 응답지 중 해당하는 응답지를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양부모 가정, 부자 가정, 모자 가정 기타 가정으로 분류하였다. 이 문항은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직장·학교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2) 사회유대이론 변수

사회유대이론에서 추출된 변수는 부모애착(6문항), 부모 감독(1문항), 친구애착(3문항), 교사에착(3문항), 관여(1문항), 신념(2문항)로 구성되었다. 부모애착은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고민을 들어 주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된 값들을 평균을 구해 사용하였다. Hirschi의 부모감독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흡연이나 음주의 경험 여부라는 것을 고려하여 부모감독을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모님(보호자)의 관심 정도는?’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친구애착은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된 값들을 평균을 구해 사용하였다. 교사에착은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된 값들을 평균을 구해 사용하였다. 관여는 ‘반에서 학업성적은 다음 중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신념은 개인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면화된 가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흡연이나 음주의 경험 여부라는 것을 고려해 담배나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즉, 흡연 경험 여부가 종속변수인 경우에는 ‘흡연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고, 음주 경험 여부가 종속변수인 경우에는 ‘술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3) 사회학습이론 변수

사회학습이론에서 추출된 변수는 정의(3문항), 차별적 접촉(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의는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된 값들을 평균을 구해 사용하였다. 차별적 접촉은 종속변수가 ‘흡연 경험 여부’ 인 경우와 ‘음주 경험 여부’ 인 경우가 다르게 측정되었다. 종속변수가 ‘흡연 경험 여부’ 인 경우에는 ‘친한 친구 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에 대한 응답을 흡연 친구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변수를 재구성해 사용하였고, 종속변수가 ‘음주 경험 여부’ 인 경우에는 ‘친한 친구 중에서 술을 마시는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에 대한 응답을 음주 친구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변수를 재구성해 사용하였다.

3) 인구학적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통제 변수로 성별, 거주지, 부모 학력, 부모 직업, 주관적 경제 수준, 학년을 고려하였다. 부모 학력은 설문지를 통해 ‘중학교 졸업 이하’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졸업(전문대졸 포함), 대학원 졸

업(석사·박사)로 조사되었는데(중간에 학교를 그만 두었어도 졸업으로 간주),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졸업(전문대졸 포함)’과 대학원 졸업(석사·박사)을 한 범주로 구성하였다. 부모 학력변수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무응답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채택하였다. 거주지는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에 대한 응답으로 조사되었는데 조사된 내용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부모 직업은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조사되었는데 부모 직업 변수도 부모 학력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직업 유무를 기준으로 하되 무응답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직업 유무를 채택하였다. 주관적 경제 수준은 ‘귀하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니까?’에 대한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점은 ‘매우 못 산다’, 4점은 ‘보통’, 7점은 ‘매우 잘 산다’이다. 주관적 경제 수준 변수는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1~3점), 보통(4점), 높은 경우(5~7점)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학년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급과 학년을 물어보는 두 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학년 변수를 범주화가 필요한 분석에 사용할 때는 변수 이름을 ‘학교급’으로 하고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을 물어보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표 1> 변수 별 문항 내용

변수		문항내용	
종속 변수	흡연경험 여부	지금까지 흡연 경험 여부(1문항)	
	음주경험 여부	지금까지 음주 경험 여부(1문항)	
설명 변수	가족구조	현재 동거하는 가족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양부모 가정, 부자 가정, 모자 가정, 기타 가정으로 분류(1문항)	
	사회 유대 이론	부모애착	평소 부모님께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6문항)
		부모감독	평소 자녀의 건강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1문항)
		친구에착	학교 생활 중 친구에 대한 생각(3문항)
		교사에착	학교 생활 중 선생님에 대한 생각(3문항)
		관여	주관적 학업성취도(1문항)
	신념	흡연·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2문항)	
	사회 학습 이론	정의	학교 생활 중 학교 규칙 준수 여부(3문항)
		차별적 접촉	친한 친구 중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2문항)
통제 변수	성별	성별(1문항)	
	거주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범주화(1문항)	
	부모의 학력	아버지(어머니)의 교육수준(2문항)	
	부모의 직업	아버지(어머니)의 직업 유무(2문항)	
	주관적 경제수준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1문항)	
	학교급 또는 학년	학교급 : 재학중인 학교의 유형(1문항) 학년 : 재학중인 학교와 학년을 묻는 문항을 통해 도출(2문항)	

4. 자료 분석 방법

가족구조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음주 경험이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변수들이 가족구조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각 특성들이 청소년의 흡연·음주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각 가족구조에 속한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포를 분석하고, 일반적 특성이 가족구조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따른 변수의 평균이 가족구조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따른 변수의 평균이 한부모 가정 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흡연·음주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놓고,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각각 적용하였을 때와 함께 적용하였을 때를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 통계 프로그램은 SAS 9.3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구조에 따라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가족구조에 따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 중 양부모 가정 청소년이 85.44%,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9.67%, 기타 가정 청소년이 4.89%로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 양부모 가정의 경우 남자 청소년이 50.78%, 여자 청소년이 49.22%, 한부모 가정의 경우 남자 청소년이 58.64%, 여자 청소년이 41.36%, 기타 가정의 경우 남자 청소년이 61.95%, 여자 청소년이 38.05%로, 각 가족구조에 따른 성별 분포가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 16.00%, 광역시 거주 32.14%, 시·군 거주 51.86%, 한부모 가정의 경우 서울시 거주 14.08%, 광역시 거주 31.42%, 시·군 거주 54.50%, 기타 가정의 경우 서울시 거주 13.54%, 광역시 거주 13.54%, 시·군 거주 55.98%로 나타났으며, 가족구조 분포의 차이는 거주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에 있어서는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중졸 이하 4.91%, 고졸 38.42%, 대졸 이상 56.67%,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중졸 이하 10.28%, 고졸 48.61%, 대졸 이상 41.11%, 기타 가정 청소년의 경우 중졸 이하 12.76%, 고졸 41.23%, 대졸 이상 46.01%로 나타났고, 양부모 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가정이나 기타 가정 청소년에 비해 학력이 높은 부모를 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이 없는 경우는 양부모 가정 청소년 2.91%, 한부모 가정 청소년

년 14.96%, 기타 가정 청소년 11.76%로 한부모 가정이나 기타 가정 청소년의 경우 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부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이 대답한 주관적 경제 수준에 있어서는 양부모 가정의 경우 낮다는 응답이 17.03%, 보통이라는 응답이 42.32%, 높다는 응답이 40.65%이었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낮다는 응답이 46.52%, 보통이라는 응답이 35.08%, 높다는 응답이 18.40%, 기타 가정의 경우 낮다는 응답이 25.06%, 보통이라는 응답이 39.60%, 높다는 응답이 35.35%로 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기타 가정 청소년이, 또 기타 가정 청소년에 비해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가정의 경제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중인 학교급에 있어서는 양부모 가정의 경우 초등학교 26.93%, 중학생 33.63%, 고등학생 39.44%, 한부모 가정의 경우 초등학교 18.28%, 중학생 29.94%, 고등학생 51.79%, 기타 가정의 경우 초등학교 45.32%, 중학생 29.11%, 고등학생 25.57%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의 경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기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나 중학생에 비해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전체 (N=9844)	양부모 가정 (N=8411)	한부모 가정 (N=952)	기타 가정 (N=481)	X^2
비율(%)		100.0	85.44	9.67	4.89	
성별	남성	51.41	50.78	51.68	61.95	22.78***
	여성	48.59	49.22	48.32	38.05	
거주지	서울특별시	15.71	16.00	14.08	13.54	6.10
	광역시	31.99	32.14	31.42	30.47	
	시·군	52.30	51.86	54.50	55.98	
부모 학력	중졸 이하	5.79	4.91	10.28	12.76	146.21***
	고졸	39.53	38.42	48.61	41.23	
	대졸 이상	54.68	56.67	41.11	46.01	
부모 직업	없음	4.49	2.91	14.96	11.76	348.58***
	있음	95.51	97.09	85.04	88.24	
주관적 경제수준	낮음	20.24	17.03	46.52	25.06	487.58***
	보통	41.50	42.32	35.08	39.60	
	높음	38.26	40.65	18.40	35.35	
학교급	초등학교	26.99	26.93	18.28	45.32	151.42***
	중학교	33.06	33.63	29.94	29.11	
	고등학교	39.95	39.44	51.79	25.57	

*p<0.05, **p<0.01, ***p<0.001

<표 3>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의 청소년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연구 대상 한부모 가정 청소년 중 부자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38.34%, 모자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61.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나 부모의 학력의 분포는 한부모 가정 부모의 성별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 부모 직업의 경우에 부자 가정의 부모가 직업이 없는 경우가 7.16%, 모자 가정의 부모가 직업이 없는 경우가 19.80%로 부자 가정보다 모자 가정의 부모의 직업이 없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 수준이 모자 가정의 경우보다 부자 가정의 경우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한부모 가정 부모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부자 가정 (N=365)	모자 가정 (N=587)	X ²
비율(%)		38.34	61.66	
성별	남성	58.63	47.36	11.45***
	여성	41.37	52.64	
거주지	서울시	13.48	14.46	0.30
	광역시	32.30	30.86	
	시·군	54.21	54.67	
부모학력	중졸 이하	12.04	9.19	2.44
	고졸	49.02	48.35	
	대졸 이상	38.94	42.46	
부모직업	없음	7.16	19.80	28.11***
	있음	92.84	80.20	
주관적 경제수준	낮음	39.83	50.69	13.32**
	보통	37.05	33.85	
	높음	23.12	15.45	
학교급	초등학교	22.19	15.84	9.43**
	중학교	31.78	28.79	
	고등학교	46.03	55.37	

*p<0.05, **p<0.01, ***p<0.001

<표 4>는 가족구조에 따라 연구 대상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경험 여부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전체 연구 대상자 중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63%,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8.89%로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에 따라 나누어 보면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양부모 가정 청소년 중에서 12.27%, 한부모 가정 청소년 중에는 23.68%, 기타 가정 청소년 중에서 17.55%이었고,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양부모 가정 청소년 중에서 27.38%, 한부모 가정 청소년 중에서 41.36%, 기타 가정 청소년 중에서 30.77%이었다. 양부모 가정보다는 한부모 가정이나 기타 가정 청소년인 경우에, 그 중에서도 기타 가정보다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인 경우에 흡연·음주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경험

변수		전체 (N=9844)	가족구조			X ²
			양부모 가정 (N=8411)	한부모 가정 (N=952)	기타 가정 (N=481)	
흡연 경험	없음	86.37	87.73	76.32	82.45	100.83***
	있음	13.63	12.27	23.68	17.55	
음주 경험	없음	71.11	72.62	58.64	69.23	81.46***
	있음	28.89	27.38	41.36	30.77	

*p<0.05, **p<0.01, ***p<0.001

<표 5>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을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흡연·음주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 청소년의 흡연·음주 경험은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한부모 가정 부모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경험

변수		부자 가정 (N=365)	모자 가정 (N=587)	X ²
흡연 경험	없음	75.82	76.62	0.08
	있음	24.18	23.38	
음주 경험	없음	57.54	59.32	0.29
	있음	42.46	40.68	

*p<0.05, **p<0.01, ***p<0.001

2. 가족구조에 따른 일탈 이론 변수의 특성

1) 가족구조에 따른 일탈 이론 변수의 특성

양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기타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일탈 이론에 따른 특성이 집단 간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표 6>와 같이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은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사회유대이론에 따른 변수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부모와 애착이 가장 좋은 청소년은 양부모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2.97)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기타 가정(2.91), 한부모 가정(2.81) 순이었다. 양부모 가정(3.55)의 청소년은 한부모 가정(3.32)과 기타 가정(3.34)의 청소년보다 자녀의 건강에 대한 부모의 관심(부모감독)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사이에 있어서도 양부모 가정 청소년(3.18)은 한부모 가정(3.00)과 기타 가정(3.04)의 청소년보다 친구 간에 애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애착에 있어서는 기타 가정의 청소년(2.76)들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 다음이 양부모 가정(2.59), 한부모 가정(2.41) 순이었다. 주관적 학업 성취도(관여)는 양부모 가정 청소년(3.01)의 경우에 한부모 가정(2.70)과 기타 가정(2.80)의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신념에 있어서는 양부모 가정 청소년(3.79)의 신념이 한부모 가정(3.72)이나 기타 가정(3.68)의 청소년의 경우보다 강했고, 음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신념에 있어서는 기타 가정 청소년(3.26)의 신념이 가장 강했고, 그 다음이 양부모 가정(3.15), 한부모 가정(3.08) 순이었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른 변수의 특성 중에서는 정의의 경우 양부모 가정 청소년(2.99)이 가장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기타 가정(2.93), 한부모 가정(2.81) 순이었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1.61)의 경우 흡연 경험이 있는 친구가 양부모 가정(1.43)과 기타 가정(1.44)의 청소년보다 많았고, 음주의 경우에도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1.77)이 양부모 가정(1.53)과 기타 가정(1.48)에 비해 음주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들의 일탈 이론 변수의 특성

변수	전체	가족구조				Duncan's test	F값
		양부모 가정 (a)	한부모 가정 (b)	기타 가정 (c)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사회유대 이론	부모 애착	2.97(0.71)	2.99(0.70)	2.81(0.73)	2.91(0.84)	a>c>b	27.38***
	부모 감독	3.51(0.71)	3.55(0.68)	3.32(0.81)	3.34(0.85)	a>b,c	60.35***
	친구 애착	3.16(0.66)	3.18(0.65)	3.00(0.69)	3.04(0.81)	a>b,c	37.01***
	교사 애착	2.58(0.63)	2.59(0.79)	2.41(0.77)	2.76(0.84)	c>a>b	35.07***
	관여	2.97(1.01)	3.01(1.00)	2.70(0.98)	2.80(1.10)	a>b,c	47.32***
	신념(흡연)	3.78(0.52)	3.79(0.50)	3.72(0.57)	3.68(0.74)	a>b,c	14.63***
	신념(음주)	3.15(0.77)	3.15(0.77)	3.08(0.78)	3.26(0.86)	c>a>b	8.88***
사회학습 이론	정의	2.97(0.60)	2.99(0.59)	2.81(0.63)	2.93(0.73)	a>c>b	39.05***
	차별적 접촉(흡연)	1.45(0.70)	1.43(0.69)	1.61(0.81)	1.44(0.76)	b>a,c	28.27***
	차별적 접촉(음주)	1.55(0.82)	1.53(0.79)	1.77(0.95)	1.48(0.84)	b>a,c	38.47***

주: *p<0.05, **p<0.01, ***p<0.001

2) 한부모 가정 부모의 성별에 따른 일탈 이론 변수의 특성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 청소년 두 집단 간 일탈 이론 변수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을 부자 가정 청소년과 모자 가정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일탈 이론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변량 분석에는 t-검정법을 이용하였으며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 감독과 신념(음주)에서만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 가정의 청소년(3.39)이 부자 가정의 청소년(3.20)보다 자녀의 건강에 대한 부모의 관심(부모감독)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자 가정의 청소년(3.15)이 모자 가정의 청소년(3.04)보다 술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모 애착, 친구 애착, 교사 애착, 관여, 신념(흡연), 정의, 차별적 접촉(흡연), 차별적 접촉(음주)에 있어서는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 청소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한부모 가정 부모의 성별에 따른 일탈 이론 변수의 특성

변수		부자 가정	모자 가정	t
		평균(SD)	평균(SD)	
사회 유대 이론	부모 애착	2.76(0.76)	2.84(0.70)	-1.66
	부모 감독	3.20(0.84)	3.39(0.79)	-3.42***
	친구 애착	3.03(0.70)	2.99(0.68)	0.78
	교사 애착	2.45(0.80)	2.38(0.76)	1.36
	관여	2.69(0.99)	2.71(0.98)	-0.31
	신념(흡연)	3.75(0.54)	3.71(0.59)	0.95
	신념(음주)	3.15(0.79)	3.04(0.77)	2.09*
사회 학습 이론	정의	2.83(0.69)	2.80(0.60)	0.75
	차별적 접촉(흡연)	1.64(0.82)	1.60(0.81)	0.71
	차별적 접촉(음주)	1.77(0.97)	1.77(0.93)	0.06

*p<0.05, **p<0.01, ***p<0.001

3.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흡연·음주의 영향 요인

연구 대상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과 일탈 이론 변수가 흡연·음주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사를 통해 선택한 변수 간에 변수 선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의 흡연·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그들의 흡연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청소년들의 가족구조, 일탈 이론에 따른 특성을 독립 변수로,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표 10>는 청소년의 흡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구조의 영향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구조, 성별, 부모의 학력, 주관적 경제 수준, 학년은 청소년 흡연과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부모 가정에 비해 부자 가정(OR=1.78)이거나, 모자 가정(OR=1.61), 기타 가정(OR=1.77)인 경우, 여자 청소년(OR=0.27)보다는 남자 청소년인 경우,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OR=0.80),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OR=0.87), 학년이 높을수록(OR=1.37) 청소년들은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모형1에서 고려한 변수에 사회유대이론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유대이론 변수 중에서는 부모애착, 부모감독, 친구애착, 관여, 신념이 청소년 흡연과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부모와 애착이 약할수록(OR=0.97), 부모의 감독이 적을수록(OR=0.87), 친구와 애착이 강할수록(OR=1.04), 관여하지 않을수록(OR=0.65), 신념이 약할수록(OR=0.47) 흡연 경험이 많았다. 모형1에서 청소년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부자 가정, 모자 가정, 기타 가정, 부모의 학력, 학년은 청소년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에서 청소년 흡연 경험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던 주관적 경제 수준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된 사회유대이론 변수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모형1에서는 서울시 이외의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청소년 흡연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2에서는 광역시나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흡연 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모형1에서 고려한 변수에 사회학습이론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학습이론 변수인 정의와 차별적 접촉은 둘 다 청소년 흡연과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할수록(OR=0.79), 차별적 접촉이 많을수록(OR=4.09) 청소년들은 흡연 경험이 많았다. 한편, 모형1에서 청소년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부자 가정, 모자 가정, 기타 가정, 성별, 부모의 학력, 주관적 경제 수준, 학년은 모형3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에서는 모형1에서 고려한 변수에 사회유대이론 변수와 사회학습이론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 변수 중에서는 친구애착, 교사애착, 관여, 신념, 정의,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 흡연과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친구와 애착이 좋을수록(OR=1.07), 선생님과 애착이 좋을수록(OR=1.08), 관여하지 않을수록(OR=0.70), 신념이 약할수록(OR=0.59),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할수록(OR=0.80), 차별적 접촉이 많을수록(OR=3.78)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청소년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 모형4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모형2에서 청소년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였던 교사애착은 모형4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모형2에 사회학습이론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야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여와 신념은 모형2와 모형4에서 모두 청소년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정의와 차별적 접촉은 모형3과 모

형4에서 모두 청소년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 외에 모형4에서는 부자 가정, 모자 가정, 성별, 부모의 학력, 학년이 청소년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청소년 흡연의 영향 요인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OR	OR	OR	OR
사회 유대 이론	부모애착		0.97**		0.98
	부모감독		0.87**		0.91
	친구애착		1.04*		1.07**
	교사애착		1.02		1.08***
	관여		0.65***		0.70***
	신념		0.47***		0.59***
사회 학습 이론	정의			0.79***	0.80***
	차별적 접촉			4.09***	3.78***
가족 구조	양부모 가정				
	부자 가정	1.78***	1.67***	1.57**	1.51*
	모자 가정	1.61***	1.61***	1.48**	1.48**
	기타 가정	1.77***	1.46*	1.49*	1.34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남) 여	0.27***	0.27***	0.40***	0.38***
	거주지(서울)				
	광역시	1.13	1.24*	1.09	1.14
	시·군	1.19	1.27*	1.13	1.17
	부모학력	0.80***	0.84**	0.78***	0.81***
	부모직업(있음)				
	없음	1.05	1.02	1.02	0.98
	주관적 경제수준	0.87***	0.95	0.91**	0.94
학년	1.37***	1.33***	1.14***	1.14***	
모형 적합도(AIC)		6367.33	5764.79	5068.66	4785.13

*p<0.05, **p<0.01, ***p<0.001

청소년 흡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음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모형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구조의 영향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구조, 성별, 거주지, 부모의 학력, 주관적 경제 수준, 학년이 청소년 음주 경험과 유의한 관계에 있었다. 즉, 양부모 가정에 비해 부자 가정(OR=1.69)이거나, 모자 가정(OR=1.30), 기타 가정(OR=1.65)인 경우, 여자 청소년(OR=0.72)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서울보다는 시·군(OR=1.22)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OR=0.80),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OR=0.93), 학년이 높을수록(OR=1.48) 청소년은 음주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모형1에서 고려한 변수 외에 사회유대이론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유대이론 변수 중에서 부모 애착, 부모 감독, 친구 애착, 관여, 신념이 청소년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애착이 약할수록(OR=0.98), 부모의 감독이 적을수록(OR=0.89), 친구와 애착이 좋을수록(OR=1.04), 관여하지 않을수록(OR=0.80), 신념이 약할수록(OR=0.60) 청소년은 음주 경험이 많았다. 한편 모형1에서 청소년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부자 가정, 모자 가정, 기타 가정, 성별, 거주지(시·군), 부모의 학력, 학년은 모형2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경제 수준은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모형1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청소년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2에서는 청소년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모형1에서 고려한 변수 외에 사회학습이론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학습이론 변수인 정의, 차별적 접촉은 청소년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하지 않을수록(OR=0.85), 차별적 접촉이 많을수록(OR=3.95) 청소년은

음주 경험이 많았다. 한편, 모형1에서 청소년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던 모자 가정, 거주지(시·군), 주관적 경제 수준이 모형3에서는 더 이상 청소년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된 사회학습이론 변수가 모형2에서 청소년 음주와 유의한 관계에 있었던 변수들의 유의미성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부자 가정, 기타 가정, 성별, 부모의 학력, 학년은 모형1에서와 마찬가지로 모형3에서도 여전히 청소년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모형4에서는 모형1에서 고려한 변수에 사회유대이론 변수와 사회학습이론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 변수 중에서는 친구 애착, 관여, 신념, 정의,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 음주와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친구와 애착이 좋을수록(OR=1.03), 관여하지 않을수록(OR=0.84), 신념이 약할수록(OR=0.67),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하지 않을수록(OR=0.87), 차별적 접촉이 많을수록(OR=3.65) 음주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청소년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 모형4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모형2에 사회학습이론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구애착, 관여, 신념은 모형2와 모형4에서 모두 청소년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정의와 차별적 접촉은 모형3과 모형4에서 모두 청소년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모형4에서는 그 외에도 부자 가정, 기타 가정, 성별, 부모의 학력, 학년이 청소년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청소년 음주의 영향 요인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OR	OR	OR	OR
사회 유대 이론	부모애착		0.98**		0.99
	부모감독		0.89**		0.94
	친구애착		1.04*		1.03*
	교사애착		0.99		1.02
	관여		0.82***		0.84***
	신념		0.64***		0.67***
사회 학습 이론	정의			0.85***	0.87***
	차별적 접촉			3.95***	3.77***
가족 구조	양부모 가정				
	부자 가정	1.69***	1.58***	1.52**	1.54**
	모자 가정	1.30*	1.28*	1.21	1.22
	기타 가정	1.65***	1.56**	1.56**	1.52**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남) 여	0.72***	0.74***	0.75***	0.77***
	거주지(서울)				
	광역시	1.13	1.21*	1.03	1.05
	시·군	1.22**	1.28**	1.12	1.15
	부모학력	0.80***	0.82***	0.79***	0.79***
	부모직업(있음)				
	없음	1.00	0.99	0.91	0.95
	주관적 경제수준	0.93**	0.98	0.95	0.98
학년	1.48***	1.46***	1.20***	1.16***	
모형 적합도(AIC)		9610.23	9112.23	7876.95	7590.43

*p<0.05, **p<0.01, ***p<0.001

V. 결론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가족구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경험 여부가 다른 지 알아보고 가족구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경험이 다르다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정은 제일 먼저 사회적 유대를 맺고, 행동규범을 배우는 곳으로써 가정 밖에서의 사회적 유대와 일탈에 대한 태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사회와 유대를 갖기 때문에 규범을 준수한다는 사회유대이론과 인간의 본성을 변화가 가능한 백지로 보는 사회학습이론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청소년 흡연·음주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는 ‘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 응답 학생 9,84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 중 양부모 가정 청소년은 85.44%,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9.67%, 기타 가정 청소년이 4.89%로 전체 연구 대상 청소년의 약 10%가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 중에서는 38.34%가 부자 가정 청소년, 61.66%가 모자 가정 청소년이었다. 단변량 분석 결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학력이 낮고, 부모의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부모 가정 청소년을 부모의 성별에 따라 나누어보았을 때 부자 가정의 부모보다 모자 가정의 부모가 직업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주관적 경제 수준의 경우에 부자 가정 청소년

들이 모자 가정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인식했다.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63%,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8.89%로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로 나누어 보면 양부모 가정 청소년 중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가 12.27%,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가 27.38%로 나타났고, 한부모 가정 청소년 중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가 23.68%,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가 41.36%로 나타나 양부모 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흡연·음주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 청소년 집단 사이에는 흡연·음주 경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들의 일탈 이론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 애착, 부모 감독, 친구 애착, 교사 애착, 관여, 신념(흡연), 신념(음주), 정의에 있어서는 평균 점수가 낮고 차별적 접촉(흡연), 차별적 접촉(음주)에 있어서는 평균 점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은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 학교, 친구에 대한 유대감, 관습적 활동에 대한 헌신이 적고, 흡연·음주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신념이 약하고,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친구영향력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에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보다 청소년의 일탈을 억제하는 변수들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고, 청소년의 일탈을 유발하는 변수들의 점수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부모 가정 부모의 성별에 따라 일탈 이론 변수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는 모자 가정의 청소년이 부자 가정의 청소년보다 부모의 감독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자 가정의 청소년이 모자 가정의 청소년보다 술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든 모형에서 양부모 가정에 비해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 청소년들

의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애착이 좋지 않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관심이 적을수록, 친구와의 애착이 좋을수록, 관습적 활동에 관여하지 않을수록,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신념이 약할수록,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하지 않을수록, 흡연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별, 거주지, 부모의 학력, 주관적 경제 수준, 학년도 청소년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음주의 경우에는 모든 모형에서 양부모 가정에 비해 부자 가정 청소년들이 음주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모형에서 양부모 가정에 비해 모자 가정 청소년들이 음주 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애착이 좋지 않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관심이 적을수록, 친구와의 애착이 좋을수록, 관습적 활동에 관여하지 않을수록, 음주가 건강에 나쁘다는 신념이 약할수록,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하지 않을수록, 음주를 하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음주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별, 거주지, 부모의 학력, 주관적 경제 수준, 학년도 청소년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2) 가족구조가 청소년 흡연·음주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흡연·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부자 가정, 모자 가정, 기타 가정 청소년의 흡연·음주 경험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0>와 <표 11>를 보면 양부모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자 가정, 모자 가정, 기타 가정의 OR이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그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값의 변화는 일탈 이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가족구조가 청소년 흡연·음주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족구조는 청소년 흡연·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데, 그 영향력이 사회유대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을 구성하는 개념들에 의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 모델은 일탈의 동기는 강한 반면 관습적인 애착과 유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 관여(commitment)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일탈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 중 어느 것도 왜 그리고 어떻게 이들 청소년들이 관습적인 사회에 애착을 갖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Shoemaker, 1984). 그런데 <표 6>의 결과를 보면,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유대가 약하고, 관여하는 경우가 적고, 신념이나 정의가 약하고, 흡연 친구나 음주 친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족구조는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왜 그리고 어떻게 청소년들이 관습적인 사회에 애착을 갖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는가를 설명해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족구조가 청소년 흡연·음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에 따라 애착, 관여, 신념, 정의, 차별적 접촉의 정도가 달라지고 이러한 요인들도 청소년 흡연·음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일탈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흡연이나 음주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2>의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한부모 가정 부모의 학력이 양부모 가정 부모의 학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표 10>과 <표 11>의 분석 결과 부모의 학력은 청소년 흡연·음주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은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이면서 청소년 흡연·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부모의 학력에 관한 결과도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일탈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일탈 이론에 따른 변수가 청소년 흡연·음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일탈 이론 변수 중 부모애착, 부모감독, 친구애착, 교사애착, 관여, 신념, 정의,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애착, 부모감독, 친구애착, 관여, 신념, 정의,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탈 이론 변수의 평균은 가족구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일탈을 억제하는 변수들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고, 일탈을 유발하는 변수들의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탈 이론 변수 중 가정 내에서의 유대를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변수는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유대이론을 주창한 Hirschi(1969)는 유대 가운데 부모에 대한 애착이 일탈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청소년에게 유혹이 생겼을 때 머릿속에 부모가 심리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을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대해 갖는 관심으로 측정하였는데, 부모와의 애착이 좋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관심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음주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갖는 관심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성은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흡연·음주 경험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많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애착과 감독에 대한 중재를 통해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흡연·음주 경험이 통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유대이론은 애착을 비롯하여 관여, 참여, 신념이 강할수록 일탈의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유대이론에 따르면 친구애착이 강할수록 청소년 일탈이 적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친구애착이 강할수록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음주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애착이라는 변수가 어떤 친구들과의 애착관계를

보는 것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이며, 일탈 집단 내에 강한 유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Hindelang, 1973). 기존에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애착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또래들을 찾고(Freeman & Brown, 2001), 그 중 일부는 일탈 친구 집단을 형성하여 서로를 지지하여 강한 결속력과 연대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박현수, 2008). 본 연구에서 친구 애착이 강할수록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역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의 결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은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와의 애착이 약하고, 부모의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습적인 유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음주를 하는 또래집단에 가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유대이론에 따르면 교사애착이 강할수록 청소년 일탈이 적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사애착이 강할수록 청소년들의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교사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은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이렇게 3문항이다. 이 문항들은 학교에서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하며 일탈하지 않는 청소년보다는 흡연·음주를 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진 선생님을 대할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교사애착과 청소년 흡연과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교사애착이 좋을수록 청소년의 흡연 경험이 많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청소년의 흡연 경험이 많을수록 교사와의 애착 관계가 유의미하게 좋은 경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교사애착은 양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기타 가정 청소년 중에서 기타 가정 청소년의 경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손가정을 포함한 기타 가정의 청

소년에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게 학교 상담 교사가 과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제력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준다 (Hsieh & Leung, 2009)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교사와의 애착이 높고, 교사의 지지가 과도하다고 느낄 경우, 교사의 역할을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남현주 외, 2013). 따라서 교사와의 애착이 좋아서 청소년들의 흡연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는 해석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교사 개입 전략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탈 이론 변수 중에서 청소년 흡연·음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차별적 접촉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의 모형2에 사회학습이론 변수를 추가했을 때 모형2에서 청소년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던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모형4에서는 그 유의미성을 잃었고, <표 11>의 모형2에 사회학습이론 변수를 추가했을 때에는 모형2에서 청소년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던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모형4에서 그 유의미성을 잃었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모형4에서 사회학습이론에 따른 변수 두 가지를 모두 투입하지 않고 차별적 접촉만 투입한 경우에도, 청소년 흡연·음주는 부모애착이나 부모감독과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친구 수(차별적 접촉)에 의해 더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또래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부모와는 공유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쉽게 공유하는 등 주된 애착을 또래와 갖게 되고(Steinberg & Silverberg, 1986), 즉, 이 시기에는 친구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대폭 증가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청소년의 행동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김성중, 2000)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일탈에 있어서 어떤 부류의 친구를 사귀느냐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청소년 흡연·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래집단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차별

적 접촉 점수가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보다 높으므로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속한 또래집단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관습적 유대가 약한 청소년들이 강력한 일탈적 유대를 가지게 될 때 일탈의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모와의 애착관계, 부모의 감독에 대한 개입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손베리(Thomberry)는 청소년 일탈에 있어서 초기 청소년기에는 가정의 역할이, 중간 청소년기에는 학교와 일탈 친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Thomberry, 1987), 이철(2011)의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와 중간 청소년기 모두에서 일탈 친구의 영향력과 부모 애착의 일탈 억제 효과가 대립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관여, 신념, 정의는 기존의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방향대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흡연·음주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보다 이들 항목에 있어서 평균 점수가 낮았으므로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이 학습을 비롯한 관습적 활동에 관여할 수 있도록, 흡연과 음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강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 청소년의 흡연·음주

<표 3>의 결과 부자 가정은 모자 가정에 비해 부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이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서는 부자 가정 청소년이 모자 가정 청소년에 비해 술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 감독에 있어서는 부자 가정에 비해 모자 가정의 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즉, 부자 가정 청소년은 모자 가정 청소년에 비해 흡연·음주를 억제하는 요인인 주관적 경제 수준과 신념(음주)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모자 가정 청

소년은 부자 가정 청소년에 비해 부모 감독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표 10>와 <표 11>를 보면 모든 모형에서 부자 가정의 OR이 모자 가정의 OR보다 높은 값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부자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모자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흡연이나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모의 직업 유무, 주관적 경제 수준,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념보다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 흡연·음주 경험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표 10>와 <표 11>의 분석을 통해 주관적 경제 수준,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념이 청소년 흡연·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으므로 이에 대한 중재도 소홀히 할 수는 없겠다.

선행 연구들은 부자 가정의 경우 모자 가정에 비해 양육과 돌봄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김진미, 2006), 모자 가정은 부자 가정에 비해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소득수준이 낮고(여성가족부, 2006), 결국 장시간의 노동으로 이어지므로 모 또한 자녀양육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오승환, 2001). 본 연구에서 모자 가정의 부모 감독이 부자 가정에 비해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을 합친 한부모 가정의 부모 감독 점수가 양부모 가정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낮았고, 이러한 결과는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에 모두 부모감독을 촉진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물론 부모감독이 더욱 결핍되어 있는 부자가정에 더 관심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한편, 모자 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파생되는 자녀 양육 문제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이

나 음주 경험이 많다는 것에 주목하여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가족구조는 바뀌지 않는 것이지만 그 밖에 청소년 흡연·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개입하여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된 이후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양육비, 한부모 자립,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자 가정은 가구소득원의 상실과 불리한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고, 부자 가정은 소득 및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가사 관리, 자녀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김안나 외, 2010). 본 연구에서 모자 가정의 경우 부자 가정에 비해 직업이 없거나 청소년의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예산을 나눌 때 모자 가정에 더 많은 예산을 분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의 재정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부모들이 경제적 문제에 쏟던 힘을 자녀 양육에도 쏟을 수 있게 된다.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관계가 좋아지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감독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자 가정의 경우 모자 가정에 비해 부모 감독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므로 부자 가정의 경우 자녀를 감독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모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교육,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적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그 세부사업으로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 뿐 아니라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기도 한다(여성가족부, 2013). 자녀의 학습 지원 서비스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학업에 관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일탈에 관여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유대이론에 따르면 관여 활동이 반드시 학업이

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업 이외에 청소년이 건전하게 몰두할 만한 활동들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흡연·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일탈 이론 변수 중 청소년 흡연·음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차별적 접촉이었다. 청소년들의 흡연·음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들이 만나는 친구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어떤 친구들과 접촉하는 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하며,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교육보다는 또래 집단에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연·금주에 있어서도 흡연하거나 음주하는 친구들과 함께 집단 금연·금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김윤희(2010)는 학교 교실이나 학교 내 보건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의료 시설이나 가정 또는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금연 효과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또래집단과의 접촉이 주로 이루어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신념을 흡연이나 음주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이 청소년 흡연·음주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이나 음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의미가 있다는 뜻이므로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속적인 금연·금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하는 등 건전한 규범을 습득하는 것이 청소년의 흡연·음주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치관이나 규범에 대한 교육 및 내면화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또래집단의 영향에 취약하고, 흡연이나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해롭다고 인식하지 않으며, 학교 규칙도 잘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에게 적용된다면 그들의 흡연·음주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이

나 음주 경험이 많다는 것에 주목하여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흡연·음주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기호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현상이다. 한 부모 가정 청소년들은 흡연·음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비록 가족구조 자체의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이들이 경험하는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모니터링 및 개입을 통해 이들의 흡연과 음주 경험을 줄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 설계에 적합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2차 자료원을 사용하다 보니 변수 설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따른 변수를 기존의 설문 문항 중에 선정해야 했는데, 사회학습이론 변수 중 ‘차별적 강화’와 ‘모방’으로 사용할 만한 적절한 문항을 기존 자료로부터 찾을 수 없어서 연구에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종속변수의 경우에는 최근 한 달 동안의 흡연 양상을 물어보는 문항이 청소년의 현재 흡연을 반영하는 데 가장 좋다고 판단하였으나, 응답자가 문항에 답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문항을 사용할 수 없었다. 대신 지금까지의 흡연이나 음주 경험 여부로 종속변수를 측정하였다. 이 변수는 단순히 흡연이나 음주를 한 번 시도하고 다시는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와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며 그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의 흡연이나 음주의 시도는 성인기의 시도와는 그 의미가 다르며 청소년기의 흡연·음주 시도가 성인기의 지속적인 흡연과 음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는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상호보완성을 염두에 두고 통합을 시도하고자 했다. 병렬적인 통합 모델을 사용하였고, 각 이론에 따른 개별 변수가 청소년 흡연·음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 지 분석했다. 그러나 변수 간 상호작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탐색하지 못했다. 변수 간 상호작용이나 경로에 대해 분석한다면 청소년 흡연·음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방적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추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이야기했듯이 청소년 흡연·음주 및 일탈을 설명하는 데에는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두 가지 이론은 개인환경적 측면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사회구조적 측면, 사회환경적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의 차별적 위치뿐만 아니라 사회나 지역사회의 차별적 사회조직은 청소년들에게 일탈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을 제공(Akers & Sellers, 2009)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조가 일탈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 일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개인환경적 요인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이런 개인환경적 요인이 청소년 일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박정선, 2013). 따라서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 다룬 가족구조 외에도 포괄적인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일탈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청소년이 흡연·음주 경험을 하게 하는 개인적 환경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청소년 흡연·음주에 노출되기 쉬운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이 한부모 가정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흡연·음주를 예방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김영란 외. (1998).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 권정순, 박인숙 (2002). "부자가정 청소년의 어머니 부재 경험." 아동간호학회 8(1): 86-96.
- 김선아 (2011). "이혼가정아동의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문제 발달궤적과 초기 보호요인과의 관계: 결혼가정과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6(3): 5-34.
- 김성중 (2000). 또래집단의영향이청소년들의네트워크컴퓨터게임이용과충족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 김순옥, 전주람, 김영숙 (2012).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연구고찰 -가족학 전문학술지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113-128.
- 김승경, 강문희 (2005). "이혼가정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아동학회지26(1): 261-278.
- 김안나, 한정원, 김양미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미 (2006).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 대한 가족구조와 사회통제적 요인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3(6): 151-178.
- 김재엽, 이근영. (2010).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경험이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2(2): 53-74.
- 김정은 (2008). 초등학교 조손가정아동과 정상가정아동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비교. 석사학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준호, 광대경, 노성호, 이동원, 이성식, 박철현 (2006).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지경, 김균희 (2013). "청소년의 음주 여부 및 빈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20(2): 317-347.
- 김지은, 조병희 (2012).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Social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moking Behavior 23(1): 57-87.
- 김진미 (2006).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동의 사회적 기술, 학교적응,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한의 대학교학생생활연구11(1): 105-124.
- 김현옥, 전미숙 (2007). "청소년의 흡연, 음주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1: 217-229.
- 남영옥 (2010).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연구." 한국청소년연구21(3): 219-243.
- 남정자 (1991). 청소년 비행의 유형과 그 사회·심리적 관련 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남현주, 윤형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 (2013).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8(1): 129-168.
- 박정선 (2013). "청소년의 긴장감, 사회유대감,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77-94.
- 박찬인, 양정빈 (2010).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7(2): 41-65.
- 박한샘 (2003).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문헌적 고찰, 상명대학교 교수논문집(2차).
- 박현수 (2008). 청소년비행과친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석주영, 박인전 (2009). "빈곤가정 아동의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양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 아동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14(2): 29-50.

- 심미영 (2007). 한국 청소년패널을 활용한 청소년비행에 관한 사회유대 이론의 검증. 국내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심미영, 정규석 (2007). "한국 청소년비행에 관한 Hirschi 이론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회 12(3): 147-171.
- 양소영 (2002). 편부모 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해결 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0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가족부 (201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오승환 (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 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12: 109-133.
- 유순화 (2003).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에 의한 청소년 비행 예측." 청소년학연구 10(4): 289-315.
- 유순화, 정규석 (2003). "청소년 음주·흡연에 관한 사회학습이론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0(2): 195-214.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5). "가족 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대한가정학회지 43(10): 91-102.
- 유영재 (2009). 청소년 비행의 통합적 경로모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윤명숙, 이묘숙, 김남희, 정향숙 (2012). "이혼가정 자녀의 상실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5: 73-104.
- 이경희, 유영달 (2006). "동거부모형태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 성과 심리적 안녕." 가족과 문화 18(2): 115-138.
- 이동원 (1997).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의 확장 - 주요 통제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6: 73-102.
- 이동원 (2006). 한국의 청소년 비행: 동향과 요인. 한국학술정보(주).

- 이성식 (1995).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허위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 6(4).
- 이성식 (1999). "청소년 범죄에 있어 긴장과 통제 - 확대된 두 이론의 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지 8: 191-214.
- 이윤호 (1988). "비행의 통합적 설명: 그 이론적 합성." 한국형사정책학회(3): 95-114.
- 이윤호 (2002). 범죄학개론. 서울, 박영사.
- 이은하, 박수경, 고광필, 조인성, 장성훈, 신해림, 강대회, 유근영 (2010). "한국인의 흡연과 사망 위험에 관한 코호트 연구." 예방의학회지 43(2): 151-158.
- 이철 (2011). "가족, 학교, 비행친구의 비행영향 효과의 연령별 비교." 한국청소년연구22(2): 31-54.
- 이태원 (1992). 일탈행동이론의 통합모형 구성을 위한 일 연구-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임은희, 서현숙 (2007). "성역할 정체감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사회통제이론의 실증 분석." 청소년학연구 14(3): 53-78.
- 전재일 (1999). 부자 가정의 실태와 복지정책. 사회복지개발연구원.
- 정지연 (2007). 부자가정의 가족기능과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소희 (2006). "가족구조, 부모양육행동 및 청소년비행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0: 185-213.
- 조아미, 임영식 (2009). "가족구조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지위비행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6(1): 137-154.
- 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실태조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한국의 청소년비행 연구동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5-157.

- 한만수 (2001). 빈곤부자가정의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연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 한혜은 (2008).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이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허혜경, 김혜수, 박인숙 (2013). 현대가정의 이해, 문음사.
- 황성현 (2009).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관한 사회유대, 자아통제, 사회학습이론적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20(1): 113-139.
- 황성현 (2010).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비행이론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49-68.
- 황성현 (2012). "청소년 흡연·음주행위의 원인에 대한 비행이론적 접근: 일반긴장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32: 23-42.
- 황성현, 이강훈 (2013).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4(3): 127-145.
- Adlaf, E. M. Ivis, F. J. (1996). "Structure and relations: The influence of familial factor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and delinquency."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Substance Abuse 5(3): 1-19.
- Akers, R. L., & Cochran, J. K. (1985). "Adolescent marijuana use: A test of three theories of deviant behavior." Deviant Behavior 6: 324-346.
- Akers, R. L. (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3rd ed.). Belmont, CA, Wadsworth.
- Akers, R.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of Press.
- Akers, R. L. Lee, G. (1996). "A longitudinal test of social learning theory: Adolescent smoking." Journal of Drug Issues 26:

317–343.

- Akers, R. L. Sellers, C. S. (2009).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 (5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ndura, A. (1977). "Self 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enda, B. B. (1994). "Testing competing theoretical concepts: Adolescent alcohol consumption." *Deviant Behavior* 15: 375–396.
- Benda, B. B. (1999). "Testing the problem syndrome among young males in boot camp: Use of theoretical elaboration with reciprocal relationships." *Social Work Research* 23: 28–41.
- Bjarnason, T., Thorlindsson, T., Sigfusdottir, I. D. & Welch, M. R. (2005). "Familial and Religious Influences on Adolescent Alcohol Use: A Multi-Level Study of Students and School Communities." *Social forces* 84(1): 375–390.
- Burgess, R. L. & Akers, R. L. 1966. "A Differential Association-Reinforcement Theory of Criminal Behavior." *Social Problems* 14: 128–147.
- Corwyn, R. F., & Benda, B. B. (2000). "Religiosity and church attendance: The effects on use of "hard drugs" controlling for sociodemographic and theoretical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0: 241–258.
- Demuth, S. and S. L. Brown (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1): 58–81.

- Fagan, P. F., & Churchill, A. (2012). The effects of divorce on children. Washington, D.C. Marriage and Religion Research Institute.
- Foxcroft, D. R., & Lowe, D (1991). "Adolescent drinking behavior and family socialisation factors: A meta-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14: 159–177.
- Freeman, H., & Brown, B. B. (2001). "Primary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Differences by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653–674.
- Gardner, L., & Shoemaker, D. J. (1989). "Social bonding and delinquency: A comparative analysis." *Sociological Quarterly* 30: 481–500.
- Gibbons, T. C. N. & R. H. Ahrenfeldt. (1971). *Cultural Factors in Delinquency*.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Glendinning A, Shucksmith. J., Hendry L (1997). "Social class and adolescent smoking behavior."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8: 1449–1460.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Griesbach, D., A. Amos and C. Currie (2003). "Adolescent smoking and family structure in Europe." *Social science & medicine* 56(1): 41–52.
- Hahn, E., J., Rayens, M. K., Chaloupka, F. J., Okoli, C. T. & Yang, J (2002). "Projected smoking-related death among U.S. youth: A 2000 update." *Impacteen Research paper series* 22.
-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 (2006). *National middle,*

- high school student smoking research on actual state.
- Hindelang, Michael J. (1973). "Causes of Delinquency: A Partial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Problems* 20(4): 471–287.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ffmann, J. P. (2003). "A contextual analysis of differential association, social control, strain theories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81(3): 753–785.
- Hoffmann, J. P., & Miller, A. S. (1998). "A Latent Variable Analysis of Strain Theor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4(11): 83–110.
- Hsieh, M. O., & Leung, P. (2009). "protective factors for adolescents among divorced single-parent families from Taiwan." *Social Work in Health Care* 48(3): 298–320.
- Kierkus, C. A. and D. Baer (2002). "A social control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delinquent behaviour."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44(4): 425–458.
- Krohn, M. D., & Massey, J. L. (1980). "Social control and delinquent behavior: An examination of the elements of the social bond." *Social Quarterly* 21: 529–543.
- Kuntsche, E. N. and H. Kuendig (2006). "What is Worse? A Hierarchy of Family-Related Risk Factors Predicting Alcohol Use in Adolescence." *Substance Use & Misuse* 41: 71–86.
- LaGrange, R. L., & White, H. R. (1985). "Age difference in delinquency: A test of theory." *Criminology* 23: 19–45.
- Magnuson, K., & Berger, L. M. (2009). "Family structure States and Transition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Well-Being

- during Middle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 (3): 575–591.
- Massey, J. L., & Krohn, D. (1986).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n integrated social process model of deviant behavior." *Social Forces* 65: 106–134.
- Odgers, L., Casper, A., Nagin, D., Piquero, R., Slutske, S., Milne, B., & Moffitt, E. (2008). "Is it important to prevent early exposure to drugs and alcohol among adolescents?" *Psychological Science* 19: 1037–1044.
- Patterson, G. R., & Dishion, T. J. (1985). "Contributions of families and peers to delinquency." *Criminology* 23: 63–79.
- Petraitis, J., Flay, B. R., & Miller, T. Q. (1995). "Reviewing theories of adolescent substance use: Organizing pieces in the puzzle." *Psychological Bulletin* 117(1): 67–86.
- Rouse, L. P., & Eve, R. A. (1991). "Explaining delinquent behavior among adolescent girls: Internal social control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Clinical Sociology Review* 9: 161–177.
- Sellers, C. S., & Winfree, T. L. (1990). "Differential associations and definitions: A panel study of youthful drinking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5: 755–771.
- Shoemaker (1984). *Theories of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explanations of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 Spear, S., & Akers, R. L. (1988). "Social learning variables and the risk of habitual smoking among adolescents: The Muscatine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4: 336–348.

- Steinberg, L., & Silverberg, S. E.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Development*57: 841–851.
- Sutherland, E. H. (1939). *Principles of Criminology*. 3rd Edition. Philadelphia: Lippincott.
- Sterrett, E. M., Jones, D. J., & Kincaid, C. (2009). "Psychosocial adjustment of low-income African American youth from single mother homes: The role of the youth-coparent relationship."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8(3): 427–438.
- Thomberry, T. P. (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36(2).
- Thompson, W. E., Smith-DiJulio, K., & Mathews, T. (1982). "Social control theory: Evaluating a model for the study of adolescent alcohol and drug use." *Youth and Society* 13: 303–326.
- USDHHS (2007). "The surgeon general's call to action to prevent and reduce underage drinking."
- USDHHS (2012). *Preventing tobacco use among youth and young adult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 Warr, M. (1993). "Age, peer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1: 17–40.
- Zucker, R. A., & Wong, M. M. (2005). "Prevention for children of alcoholics and other high-risk groups." *Recent Developments in Alcoholism* 17: 299–320.

Abstract

Adolescents'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 from single-parent families and affecting factors

Do Kyung Kim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 Objectives

In the present context, there is increasing rate of family structure with single parent and the high number of teenagers living in such a family structure. Family structure with single parent is not only a change of family structure but also, creating numerous complex problems. Drinking alcohols and smoking during teenage period have affecting physically and mentally. Additionally, it is also becoming the source of causing the problems after adult life span. Related aforementioned circumstances, previous research studies have shown that teenagers under single parent found more deviant with behavior compared to the teenagers under two paren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cern and focus to care about teenagers' health differences who were grown up in single parents' family environment. If a family structure has an impact on teenagers' drinking alcohol and smoking behavior, it is important to analyze affecting factors through this research.

Method

Regarding the data, the secondary data were analyzed as already colle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under the topic of 'Korea Youth Health Survey-2010'. Smoking and drinking experience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family structure, social bond theory factors, social learning factors as explanatory variables, gender, place of residence, parental education, parental occupation, subjective economic level, grade as control variables. To compare the average points of deviation theory factors among different family structure, one way ANOVA and t-test was performed.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know about the variables which affected the adolescents' smoking and drinking experiences significantly.

Result

This study, found the adolescents from single parent families and other family structure have more smoking and drinking experience than two parents families. Adolescents from single parent families get less scores than adolescents from two parent families in parent attachment, parental supervision, friend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commitment, belief, justice and get more scores in differential association. Parental attachment, parental supervision,

commitment, belief, justice are controlling factors and friend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differential association are considered as the causing factors for adolescents' smoking and drinking experiences. Among the above said variables, differential association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to adolescents' smoking and drinking experiences. Gender, parental education, grade also significantly influence to the experiences.

Conclusion

The smoking and drinking of single parent' s adolescent are not just a personal preferential choice but multidimensional phenomenon of the family structure and society. Adolescents from single parent families are likely to be exposed to deviational behavior. Because their bond is weak, their commitment is not high, their belief is weak, they are also favor in unorthodoxy and they have lots of friends who smoke and drink. Thus, to prevent adolescents' smoking and drinking from single families, although changes of family structure is not possible, we can support, monitor and intervene in relationship with the single parent, their school life and also friendship ro overcome the above factors..

keywords : single parent families, adolescents'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 social bond theory, social learning theory

student number : 2012-23708